

전북 “도민 모두 고른 소비활동으로 민생 회복을”

쏘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전액 도비 활용... 추경예산 제출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 지급 방침 생산유발효과 지원액 1.8배 기대



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전북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고려해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쏘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원시 우리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금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해소와 경

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하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했다.

금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

정이란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오는 13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5월 23일 까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경기도, 10일부터 행정명령 조치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 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

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정읍시, '주향 거리 조성' 골목경제 회복사업 선정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골목 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정읍의 '주향(酒香) 거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골목 경제 회복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피해가 집중된 지역 골목 경제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한 골목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읍시가 제시한 '주향(酒香)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국에서 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주향(酒香) 거리 조성사업'의 주향(酒香)은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五香) 중 지역 내 전통주를 포괄하는 단어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주요시책 중 하나로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소재로 한 '주향(酒香) 특화 거리 조성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강성대 기자

광주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손질

청소·경비원 등 비정규직 대상 휴게실 개·보수 등 16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는 6일 공동주택에서 근무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1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지하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이달 중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

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청소나 경비 일을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인권 등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영양 청우회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 수상 모습.

영양 청우회,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영양 청우회는 코로나19 방역 적극 참여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고 6일 밝혔다.

영양 청우회는 코로나19 1차 유행과 3차 유행 시에 영양군 내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앞장서서 2020년 4월 및 12월 중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자체소독반을 결성해 총 10여회의 집중방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서 비롯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각종 행사 모임 자제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홍보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영양군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농촌일손 돕기 실시와 무더위가 심한 여름철에는 어르신들 및 취약계층을 위해 수박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인권·평화미술관 전시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저녁노을미술관에서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 중간보고회 하의도에서 오월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2020년 이후 예술공장에서 제작된 작품 100여점을 비롯해 총 2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신안군에서는 2년에 걸쳐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미술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건축디자인 등을 진행해 최근 건축디자인을 확정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술관 소장품과 콘텐츠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화예술공장'을 운영해왔다. '예술공장'에서는 흥성담 작가를 비롯한 신의도 출신 전정호 작가와 일군의 예술가들이 미술관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광주은행 가정의 달 이벤트... 가전 등 '풍성'

광주은행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가정'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스타일 나는 가전 드리情 이벤트 ▲31가지 아이스크림 맛보情 이벤트 ▲스카이박스 가보情 이벤트 총 3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스타일 나는 가전 드리情 이벤트 전가맹점에서 개인카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 의류관리기, 2등 5명에 공기청정기, 3등 10명에 에어프라이어기를 제공한다.

▲31가지 아이스크림 맛보情 이벤트 5월 공휴일(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매주 토·일요일) 중 개인카드 백화점, 대형할인점, 주유소, 음식점에서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모바



일쿠폰 2만원권을 제공한다.

▲스카이박스 가보情 이벤트 전가맹점에서 개인카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일일 이용권을 제공한다.

스마트뱅킹(APP), 모바일웹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광주=강성대 기자

부산 자랑 '명란젓', 우체국쇼핑몰 통해 판로개척

부산시와 부산명품수산물협회가 부산의 대표상품인 명란젓의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을 통한 온라인 판로 넓히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명품명란젓의 우수함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수산식품 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 내 배너 광고를 통해 명란젓 상품을 노출하고 특가 이벤트

등을 진행해 부산명품 명란젓을 홍보할 예정이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명란젓은 부산시에서 부산명품수산물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4개 업체(덕화푸드·대경F&B·회창물산·삼양씨푸드)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낮은 염도의 고급·웰빙 식품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역특산물 쿠폰 할인과 타임 딜, 쇼핑 25시 등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명란젓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